

## 제45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국무총리상 수상 「요리하는 즐거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패키지 디자인 연구」



김지혜

롯데칠성음료(주) 디자인팀 디자이너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대한민국 디자인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신예 디자이너 발굴의 장이자, 국내 산업 디자인의 미래를 조망하는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수상작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디자인계를 이끄는 학계·산업계의 초대·추천 디자이너 542명을 배출한 이 전람회는 1995년부터 집계된 출품 수만 2만5천여 점에 달하는 국내 최대·최고 규모의 공모전이다. 이번 전람회에서는 롯데칠성 디자인팀의 김지혜 씨가 바쁜 현대인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식습관을 제안한 「요리하는 즐거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패키지디자인연구」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지혜 디자이너에게 작품 소개 및 패키지디자인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국무총리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이번 공모전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패키지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제가 패키지 디자인의 1세대는 아니지만 그 분들의 뒤를 이어 항상 최선을 다하고 디자이너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며 열정을 잃지 않는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2008년 롯데칠성음료(주) 디자인팀에 입사한 김지혜 디

자이너는 지난해에도 제44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상을 수상, 올해 필묵아트센터 손글씨 작가와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추천작가로 선정되는 등 ‘디자인어’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롯데칠성음료(주)에 입사하기 전, 이미 2007년 제12회 경기디자인전람회 한국디자인협회 회장상, 2008년 43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지식경제부 장관상, 2008년 예지미인 디자인 공모전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준비된 예비 디자이너로서의 면모를 자랑했다.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43회부터 꾸준히 공모전에 참가하고 있다”는 김지혜씨는 “대한민국전람회는 선행디자인으로 미래디자인의 트렌드를 제시할 수 있어 디자이너들에게 의미가 큰 공모전”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내 패키지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의 영향력을 펼 수 있는 큰 무대라는 생

각으로 배움과 그 의미가 깊기에 항상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45회 또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금번 제45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하게 된 김지혜 디자이너는 ‘요리하는 즐거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패키지를 제작하게 됐다.

그녀의 출품작 ‘요리하는 즐거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패키지디자인 연구’는 웰빙시대에 접어든 젊은 세대들의 식습관에 맞춰 집안에서 야채 및 채소들을 재배하여 조리과정까지 필요한 제품들을 모아 패키지화시키는 작업을 선보였다. 특히 전체적인 디자인의 분위기는 고급스러움과 친환경적인 느낌을 부각시켰고, 외각부분만 비주얼을 입히고 나머지 모든 지기는 크래프트지에 스티커작업만하여 인쇄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등 친환경 컨셉을 토대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작업했다.

“아파트에서도 식물을 기를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으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필수아이템을 부각시켰습니다.”

김지혜 씨는 이번 작품을 하면서 친환경적인 제품이지만 동시에 고급스러움을 표현하는 점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다고 토로한다.

“사실 친환경적인 제품은 보통 종이 재질을 저렴한 크래프트지(소포지)를 사용하여 디자인 하지만, 저희 제품은 고급스러움을 함께 표현



▲ 요리하는 즐거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패키지 디자인 연구

해야 하기 때문에 컬러를 친환경적인 제품과는 다소 떨어진 '블랙' 컬러를 선택하여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블랙 컬러를 선택함으로써 고급감은 표현 할 수 있었지만 환경적인 면이 표현되지 못한것 같아서 접착을 최소로 줄였습니다. 인쇄 또한 전면을 다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스티커 작업을 통해 환경적인 면을 부각시켰는데 이런 해결책을 찾는 부분이 힘들었습니다.”

포장디자인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알리고, 구매의욕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그녀는 상품의 인지도를 넓히는데 패키지디자인만큼 큰 광고 효과는 없다는 믿음을 갖고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데 있어 좀 더 고민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표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지혜 씨는 국민 모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웰빙 문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패키지도 더욱 환경을 고려한 트렌드로 변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포장디자인은 제품은 친환경적이라고 광고하지만 정작 현실적으로 패키지 디자인은 과대포장으로 전혀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 따라서 그녀는 종이를 최소로 사용하면서도 접착력을 줄인 패키지, 즉 최소의 방법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디자인을 계획하고 있다.

김지혜 씨는 디자이너의 한사람으로서 아직 패키지디자이너들은 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의 눈도 높아져 디자인이 어느 수준 이상을 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된 만큼 디자이너들의 어깨는 무겁기만 합니다. 따라서 같은 업계에 계신 있는 분들이 앞으로는 디자이너들의 가치를 높여주고 패키지디자인업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김지혜 씨는 더 좋은 디자인 더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패키지디자인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전했다.

젊은 열정으로 가득찬 그녀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한편, 제45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작품전시는 대국민 디자인 붐 조성 및 일반 기업의 참관 확대를 통한 상품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비즈니스 전시인 디자인코리아 2010와 코엑스에서 공동전시로 개최, 오는 12월 7일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시상식을 연다. ☐